한국산 EPDM 반덤핑 조사 연장

중국, 2001년 2월10일까지 심사 ... 미국 · 네덜란드 수입제품도

중국 상무부는 8월5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EPDM 반덤핑 사안의 정황이 비교적 복잡한 점에 비추어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반덤핑조사가 2006년 2월10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EPDM 제조기업인 길림화학의 제소내용을 받아들여 2004년 8월10일 한국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EPDM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었다.

EPDM은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을 중합시켜 만든 유기화학물질로 건축과 와이어 및 케이블, 자동차부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금호폴리켄과 금호석유화학 등이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4년 한국산 EPDM의 중국 수출액은 전체의 22.6%인 340만달러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5/08/08>